

5·18조사위, 전두환 발포명령 못 밝히고 마무리

21개 직권과제 중 7건만 완료
방위병 학살 투입 최초로 규명
청문회 실패 “조사 강제력 부족”
“조사위 성과 무엇인가” 쓴소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뚜렷한 성과없이 4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핵심 안건이었던 ‘전두환 발포 명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조사위는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서 ‘국가차원의 5·18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현재 조사위는 총 21개 직권과제 중 3분의 1인 7개 과제만을 심의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인 사망 △민간인 상해 △행방불명자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군에 의한 헬기 사격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검거 간첩 홍종수·손성모의 5·18 관련성 여부 등이다. 나머지 14개(2개 병합)는 현재 전원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신청사건은 21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3건이 심의 완료되고, 80건이 직권사건 병합, 93건이 각하 또는 취하됐다.

조사위 측은 “나머지 직권과제가 12월 26일까지(기한이) 남아있는데 보고서 내 개인정보, 군사기밀 인용 등 삭제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해 대국민 공개는 시간



국가차원의 5·18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 공개토론회가 20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증언 영상 등을 시청하고 있다.

이 더 필요하다”며 “심의의결된 7개 과제도 내부 심의 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규명한 일부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는데, 5·18 당시 계엄군뿐만 아니라 방위병도 민간인 학살에 투입된 사실이 최초로 밝혀졌다. 당시 방위병을 운용하던 31사단은 61훈련단 11병참선 경비대대를 5월23~24일 광주변 전소 탈취, 광주톨게이트 봉쇄 작전 등에 투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투입된 400여명은 모두 방위병 신분이었다.

주요 열사들의 사망 경위도 새롭게 규명됐다. 5·18최초 희생자인 김경철 열사는 5월18일 금남로에서 부상을 입고 19일 국군통합병원에서 숨졌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 19일 오후 적십자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는 5월 27일 옛 전남도청 최후항전에서 사망했는데 이때 ‘자상’이 아닌 복부에 ‘총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정정됐다.

하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발포 명령자’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조사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씨의 핵심 측근으로부터 그 주도성과 중심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토론회서는 입장을 뒤집었다.

조사위 측은 “발포 명령이 실제 상부에서 내려왔는지가 조사에서 가장 큰 주제였다”며 “기록이 남아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 진술 조사에 치중했지만, 이 부분(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발포 경위 및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5월19일 광주고 앞에서 최초 발포된

사실과 20일 광주역,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실탄 배분, 발포 명령, 실탄 통제와 진돗개 발령 사실 등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청문회 무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사위는 지난 2월부터 3차례가량 청문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개최했으나, 조사 미비 등의 이유로 청문회를 열지 못해 원성을 산 바 있다.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은 청문회 실패의 원인이 ‘조사 강제력 부족’에 있다고 분석했다. 민 소장은 “출석요구, 동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사의 강제력 담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며 “수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압수·수색에 관한 의뢰 권한이 아니라, 행정조사권으로서의 증거물 수거권 등을 위원회에 인정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등으로 간접적인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위 발표 이후 이날 자리에 참여한 유공자 등 참석자들 사이에선 “조사위가 해 놓은 게 뭐가 있는지의 의문이 많다”는 등의 쓴소리가 나왔다.

한편, 지난 2018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듬해 2019년 12월27일 한시기구로 출범한 조사위는 오는 26일 공식적으로 활동이 종료된다. 조사위는 내년 6월26일까지 정부에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해 전달해야 한다. **강주비 기자**

광주교육청 ‘27억 부채’ 홍복학원 정상화 논의

부채 62억 중 27억 해소해야
“설립자 등 협의체 간 논의를”

횡령으로 만기 출소한 이홍하씨 사학비리로 존폐 위기를 맞은 홍복학원(산하학교 대광영고·서진여고) 정상화가 상당한 부채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은 전날 제2차 홍복

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홍복학원에 학교법인을 정상화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논의를 통해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며 나머지 12명의 위원들은 광주시교육청 국·과장, 시의원, 법조계·시민단체 등 12명이다.

대책위는 지난 19일 올해 두 번째 회의를 열어 ‘2023년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현황’ 등 학교법인 제출 안건 4건과 ‘2023년 홍복학원 임시이사 선임’ 등 시교육청 제출 안건 3건 등 총 7건에 대해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정상화 현안을 논의했다.

7건의 사안이 시정됐을 때 임시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이사회에서 임시이사 선임요건 충족 의결을 내면

교육감은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최종적으로 정이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홍복학원이 상당 규모의 부채가 쌓여있어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제2차 대책위의 안건 7건 중 4건은 해결해나가고 있으나 나머지 금전문제 2건을 포함한 총 3건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금전문제에 해당하는 2건(수익용 현금 자산·설립자 출연 교사충족비 관련)은 27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억원을 포함해 교사대여금 소송, 재

정결합보조금 인건비 반환비 등 홍복학원의 총 부채는 62억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한 설립자·전·현직이사협의체와의 협의, 재정기여자 모집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재춘 광주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장은 “이번 대책위는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임시이사를 중심으로 설립자·전현직이사 협의체 등과 협의를 통해 학교법인 정상화 방안을 요청했다”며 “해소 시점에서 학교법인 임시이사 의견을 검토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법인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식,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